



새길측량설계·신윤식씨, 무주군에 장학금 기탁

지난 13일 새길측량설계사무소와 무주읍 신윤식 씨(62살)가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했다.

1백만 원을 기탁한 박성진 최정민 공동대표는 "무주의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데 꼭 필요한 동력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주민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건강한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새길측량설계사무소는 2022년부터 무주에서 측량업을 하는 업체로 지속적인 장학금 후원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무주읍 신윤식 씨도 1백만 원을 기탁하며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도전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어린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역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황인홍 이사장(무주군수)은 "새해에도 이어지는 고마운 손길이 무주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앞길을 잘 이끌어 줄 것을 믿는다"라며 "재단에서는 고마운 마음들을 잘 헤아려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사랑의 동산교회, 익산 팔봉동에 230만원 기탁

익산시 팔봉동은 '사랑의 동산교회'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은누리상품권 200만 원을 기탁하고, 한 장애인시설에 30만 원을 추가로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팔봉동은 기탁된 은누리상품권을 지역 저소득 주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사랑의 동산교회는 2009년부터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시작으로 지역 어르신 초청 효 잔치 개최 명절 백미·상품권 지원 사회복지시설 생품 지원 등 한해도 빠짐없이 어려운 이웃을 섬겨오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장애인 한 세대에 생필품과 가전제품을 전달했으며, 교인들과 함께 주택 페인트칠을 지원하기도 했다.

임재규 사랑의 동산교회 담임목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온기가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남원시보건소,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관내 장애인 시설을 방문 및 보건소에 내소해 구강보건 교육, 구강검진, 불소도포, 틀니 관리 요령,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스크링 등 거동이 불편한 시설 이용자에게 맞춤형 구강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장애인들은 의사진달이 힘들거나 거동이 불편해 구강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열악한 구강 상태로 꾸준한 구강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치과 공중보건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전문인력이 구강건강 관리에 대한 서비스에 나서며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적장애 인협회는 2개월에 1회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편한 세상은 매월 1회, 평화의집은 2개월에 1회 시설을 방문해 오는 12월까지 실시,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건소 건강생활과 건강증진팀 구강보건실(620-7975~6)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구강 상태가 열악하고 스스로 치아를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구강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동계 전국 실업검도대회 15일 남원서 개최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체육관서 실업 국가대표상비군 선발전·개인전·단체전 진행

남원시에서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체육관에서 남원 동계 전국실업검도대회가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남원시체육회와 한국실업검도연맹이 주최하고, 남원시가 후원해 전라북도 검도회와 남원시 검도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5일에 실업 국가대표 상비군 선발전을 시작으로 16일부터는 개인전과 단체전의 경기가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남자 15개팀 여자 8개팀으로 총 23개 실업팀의 720여 명 선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16일 남자 3단~6단부 예선에서 결승전, 17일에는 남자 통합부 개인전과 여자부 개인전 및 남자부 7인조 단체전이 예선부터 결승까지 치러진다. 18일 10시에는 여자부 3인조 단체전, 여자부 5인조 단체전이 예선부터 결승까지, 남자부 5인조 경기는 예선부터 8강까지 진행되고 대회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남자부 5인조 단체전 8강부터 결승으로 이번 대회 마지막 막을 장식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동계실업검도대회를 통해 지역의 스포츠 문화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검도에 대한 관심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남원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노암동,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사업 지속 추진

남원시 노암동이 지난해 추진한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사업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어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관내 산책로 3곳(관광단지입구, 금양봉입구, 김병종미술관 부근)에 설치된 배변봉투함은 우체통 모양으로 내부에 일회용 배변봉투가 롤 형태로 되어 있어 한 장씩 뜯어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비치돼 있다.

특히 관광단지입구에 설치된 배변봉투함은 1일 평균 10여 장 이상 소진되는 등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노암동은 반려동물 배변봉투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과 관리를 할 계획이고, 자세한 사항은 노암동 행정복지센터(063-620-4765)로 문의하면 된다.

임접숙 노암동장은 "배변봉투함 최근 이용실적 및 주민 호응도를 반영해 확대해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설 명절 맞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캠페인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최근 설 명절을 맞아 김제역에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을 펼쳤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2화차를 맞이하는 만큼,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홍보를 위해 김제역에 배너를 설치하고, 리플렛과 관별, 홍보물품을 이용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김제시장 및 NH농협 김제시지부 관계자들이 직접 홍보 어깨띠를 두르고 귀성객들에게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 리플렛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등 뜨거운 홍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지평선봉사대는 귀성객들에게 차(茶)나눔 행사를 진행하는 등, 고향사랑기부 홍보 캠페인에 열기를 보였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고향을 아껴주시는 출향인분들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인 최대 500만원까지 주소를 제외하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제시는 40개 품목의 김제만의 특색이 담긴 답례품을 구성하여 기부자들의 만족감을 높이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시설공단 마을버스 '바로온',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 전북특파도지사(회장 이선홍)는 전주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마을버스 '바로온'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쉼달라며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마을버스운영부 운전원 및 직원들이 간식비 등을 아껴 운전원 휴게실에 설치된 이웃돕기성금 모금함에 기부한 금액이 모인 것으로, 2021년 모금한 설치 후 매년 적십자에 성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마을버스운영부 부장은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뿌듯하다"며 "마을버스 '바로온'은 지금처럼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 '바로온'은 전주시 내 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지난해 8월부터 전기버스 11대를 추가 도입해 현재 25대를 운영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남원 도통동, 19일까지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

남원시 도통동(동장 소선자)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4일간 동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22개소를 방문해 주민들과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 시정 공유 및 행정홍보 강화 등을 위한 공감 소통행정을 추진한다.

올해 도통동 행정복지센터는 열린 시민공간 열린대화 및 간담회 일환으로, 주요현안사업 및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제4회 춘향제 기본계획 안내 및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독려, 한복나눔 기부 캠페인 안내, 고향사랑기부제, 시민참여 청사초롱 설치, 춘향제 대동갈매기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최근 화재 발생 증거에 따라 화재예방 계도 및 홍보 시정 및 동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 소통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현장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동장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사명감으로 지속적인 현장방문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는 좋은 기회



였다고 전했다. 한편 소선자 동장은 주민의견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등 주민과 화합하고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사회복지원 소집 해제 신고식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경수)는 13일 오전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소집 해제 신고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방서는 사회복지요원에게 전역증과 함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기념패와 꽃다발 등을 전달했다.

이제후 사회복지요원은 대응예방과에 1년 9개월간 근무하면서 3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보조했고 화재예방 캠페인 등에 참여했다.

박경수 서장은 "소집해제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동안 열심히 근무해주시고 고맙다"며 "사회에 나가서도 지금처럼 성실하게 생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정읍산림조합, 제13회 늘푸른장학금 수여

정읍산림조합 조합장 최봉관은 최근 제13회 늘푸른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선발된 장학생들은 지역 인재육성 아울러 학업 생활이 우수하고 조합에 남다른 애착심을 가진 조합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심의과정을 거쳐 선발했으며 조합원 자녀 대학생 15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 13번을 맞아 그동안 선발된 장학생은 총 200명이다. 최봉관 정읍산림조합장은 "조합원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역 인재육성에 밑거름이 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기쁘고 미래의 인재에게 투자하는 정읍산림조합이 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합원의 힘이 되어 주고 임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정만 순창의료기 등 대표, 이웃돕기 성금 기탁

순창건강의료기기 및 삼천리자전거 이정만 대표는 최근 순창군을 방문하여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쉼달라며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정만 대표는 2004년부터 순창에서 건강의료기기와 자전거를 취급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건강보조기기 등 의료보장구 보급을 위해 애써왔으며, 이번 성금은 순창군 내 생활이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정만 씨는 이번 성금 전달을 통해 "지역 내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영식 순창 부군수는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이정만 대표께 감사드리며, 겨울철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해 건강한 겨울나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